

문 대통령 “친일 청산, 정의로운 나라 출발”

백범김구기념관서 국무회의
“유관순 3·1운동 표상
더이상 역사 변방 아나
한반도 국제질서 변화 주도
자신감으로 새시대 열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변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야 할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신 한반도 체제’의 주도적 준비를 강조했다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역사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자주성 강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택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부 최고 심의결정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이상과 불굴의 의지가 실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제에 앞서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안중근 의사 가묘에서는 반드시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새

겼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한 때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사업을 했었는데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남북 또는 남북중이 함께 공동유해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더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록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의 자

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않았던 여성 의병과 국내의 독립유공 활동 발굴에 대한 정부 노력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도 언급했다. /뉴스

정부,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1등급’
추가 서훈키로

정부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수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했다. 유관순 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겪지 못한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관순 열사의 추서가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고 서훈 상황에 대한 국내적 열망 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 간에 검토도 있는 검토를 해왔다”며 “검토 결과를 반영해 보훈처에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사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

오늘 제2차 북미정상회담

베트남 도착 김정은 “행복하고 감사”

26일 베트남에 입성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성은 “매우 행복하다”였다.

현지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베트남 국경 랑선성 동단역에서 보 반 트엉 베타남 공산당 선전담당 정치국원과 함께 자신을 맞이한 마이 띠엔 중 총리실 장관이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우 행복하며, 베트남에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이후 하노이 시내로 이동, 숙소인 멜리아호텔에선 응우옌 득 쯙 하노이 인민위원장 일행의 영접을 받

았다. 김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고 다시 한 번 낮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초청을 통한 공식 친선 방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건 김일성 주석 이후 54년 만이다. 아울러 북한 최고지도자가 기차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베트남 입국 직후 하노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근 경제구역인 타이응우옌 및 박닌 지역을 시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하노이 시내로 직행, 베트



26일(현지시간) 베트남 동단 역에 도착한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영식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남 입국 2시간30여분 만에 숙소인 멜리아호텔에 입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시찰 대신 곧장 숙소로 입장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 일정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행보

대신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실린다. 김 위원장은 공식 회담 첫날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 및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

“자치입법권 확대·조직권 탄력 운용”

송승환 전북도의회 의장,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서



송승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등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26일 전남에서 임시회를 열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확립적으로 규정된 자치조직권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령에 없는 자치사무의 경우 주민수요 및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 위임 조항이 조례 제정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자치조직은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와 별도로 부단체장 인원

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 의장은 임시회에서 최근 입실 옥정호 식수원 인근에 폐기물을 반입·매립토록 토양정화법을 변경, 등록 해운 광주시에 토양정화법 변경 등록 수리를 추가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 의장단에 강력 요청했다.

이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정화법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는 등록관한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로 변경하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데 역량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및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회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김진성 기자

폼페이오 “싱가포르 약속 진척 중요 기회”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7일부터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베트남 도착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 회담을 위해 시간 맞춰 베트남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노이바이국제공항

도착 사진을 손수 올렸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완수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진척시킬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현지시간 기준 이날 오전 7시45분(한국시간 오전 9시45분)께 노이바이국제공항을 통해 9시45분(한국시간)에 도착했다. 그는 전용기를 통한 비행 여정 중에도 트위터로 “비핵화와 관계 발전을 향한 우리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발표

정치인·강력범죄자 등은 제외

법무부가 26일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면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정치인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법, 특별배려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사면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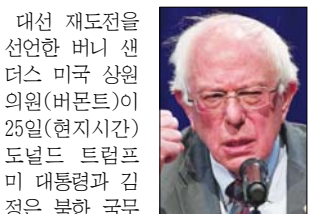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쌍용차 파업 사건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직관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 1명도 포함됐다.

다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던져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제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없었다. 한명속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등도 제외됐다. 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배제했다. /뉴스

샌더스 “트럼프, 北 비핵화 노력 좋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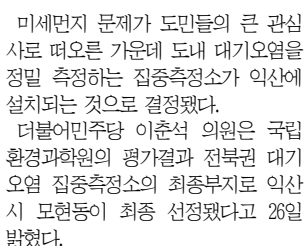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버몬트)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 주최 토론 토크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 “무책임한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있는 건 나쁜 생각”이라며 “민약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익산 설치”

민주당 이춘석 의원



미세먼지 문제가 도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도내 대기오염을 정밀 측정하는 집중측정소가 익산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결과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최종부지로 익산시 모현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대기질 측정 등 현지조사와 전문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평가

위원 전원 의견으로 익산 모현동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권 집중측정소는 익산경찰서 인근 부지에 3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3월 부지 매입협약과 4월 건설설계공역을 거쳐 202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전북권 미세먼지 해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